#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어떤 애고든 불타 버린다

☞ A17면에서 계속

**질문자3(남)** 지난달에 스님께 말씀드리고 돌아가면서 '나도 이 공부를 하고 중생 구제를 하겠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중생 구제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무슨 원력을 갖춰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참된 것이 되겠지만, 그게 과연 올바르게 한 것일까를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스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그분들이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주고 그게 길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힘을 자신이 스스로 밝혀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중생이 부처임을 알아서 부처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 참된 중생 구제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쭙고 싶은 건, 아무튼 그날 가서 스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제 실생활에 한번 체험을 해 보기 위해서 주위의 아픈 분들이나 저의 부모님 같은 경우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안된다고 해서 물러날 나도 아니고 내 평생토록 해서 다 맡긴 게 다 안된다 하더라도 나와 둘이 아닌 그 역대 조사들이 피눈물을 흘려 가면서 입증을 해 놨고 대행 스님도 이 땅에서 지금 활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잘못이 있다면 내가 잘못을 했겠지, 그 마음 도리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무엇이 모자랐고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고쳐 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스님께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큰스님** 맹물이 싫다고 할 때는 설탕을 가미하든 소금을 가미하든 어떤 가미를 해야 잘 먹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슬쩍 가미를 하라고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불을 켜려면 이것도 이어야 되고 저것도, 소켓도 달아야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불을 켜려고 그러면 켜져요, 그게? 허허. 그러니까 가미를 해요. 하나로, 슬쩍. 이 스님도 때에 따라선 끌어다가 쓰라고요. 가미를 해서 줘야 이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잘해 봐요.

**질문자4(여)** 큰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 큰스님에게 단지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환생하여 큰스님 앞에 서게 됨을 큰스님께 감사드리며 주인공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봄,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졌습니다. 어깨뼈, 갈비뼈 14개, 장 파열과 콩팥 파열, 또 골반뼈 구석구석 다 으스러진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병원을 옮겨 그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보자며 두 차례 수술을 하였습니다. 두 차례 걸쳐 수술을 하였어도 저는 회생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혈구 수치는 3만까지 올라가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부산지원의 스님들과 그리고 회장님의 주선 아래 저의 처사님이 큰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견하고 온 후, 제 몸은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백혈구 수치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저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큰스님을 얼마나 찾고, 주인공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큰스님! 제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정말 당신이 있다면 아내로서의 임무와 엄마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당신만은 그렇게 하고 갈 수 있잖아!' 하면서 주인공을 소리 없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며 불렀는지 모릅니다.

> 본래 쳐져 있으니 그 본래 쳐져 있는 광명의 빛을
> 바로 자기가 응용해서 보고 비추고, 또 쳐고 끄고 하는 것이 없이
> 쳐고 끄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겁니다.

큰스님, 제가 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제 이웃의 아픔을 알았고 만물만생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큰스님, 저는 누워 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많은 체험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매달린 의사들이 분야별로 흉부외과 뭐, 정형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네 분이나 됐는데 그분들 모두 한결같이 저를 지극 정성 보살폈고 또 항상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역시 천사의 손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제 주인공의 나툼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어쩌면 의사들이 아줌마한테만 유독 저렇게 지극히 간호를 하느냐고. 바로 제 주인공의 나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골반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골반뼈 수술은 철사로 얽어매는 작업이었는데, 제가 백혈구 수치가 너무나 높아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주인공! 당신이 이 몸을 병신을 만들든…' , 제가 기침을 하면 그 뼈의 조각조각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말씀드리니 의사가 "그 뼈의 조각들이 골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궁에 들어갈 수도 창자를 뚫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라고 조금만 수치가 낮으면 수술해야 되니 그렇게 작정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주인공 이것도 당신이잖아. 당신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아니, 제가 기침을 하면 이게 자유자재로 그냥 뼈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옆이.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손을 살며시 옆의 그 골반뼈를 만져 보니 이 주위가 딱딱하면서 올라와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침을 하니까 뼈가 움직이질 않습디다. 그전에 기침을 하면 근육에 따라 뼈가 움직였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 뼈가 제자리로 들어갔는가 보다." 하셔서 다시 사진을 찍고 진료를 해 본 결과 "아줌마, 안심하십시오. 뼈가 제자리에 다 제각기 찾아 들어갔으니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제가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들어올 때는 모든 사람, 모두 다,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 했고 모든 일가친척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가망이 없다 하는 제가 너무나 급속도로, 정말 급속도로 빠르게 낫기 시작하자 의사들은 제가 화젯거리고 또 관심거리였나 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아줌마, 우리가 의술 배운 데 대한 보람을 아줌마한테서 느꼈고 아줌마가 그렇게 참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참 아줌마가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아줌마, 아줌마는 기적이고 운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어찌 이 법을 알겠느냐고. '이 광대무변한 이 묘법을 어찌 당신들이 알겠느냐.' 하면서 제 주인공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큰스님, 살지도 못한다는 제가 2개월 만에 퇴원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제가 큰스님에게 그리고 법우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말이 막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큰스님** 그래, 그만해요, 이제.

**질문자4(여)** 아니, 큰스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산지원의 스님들과 그리고 우리 회장님 또 우리 수많은 법우들 저와 함께 항상 한마음으로 저를 이끌어 준 데 대해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요. 무지한 저에게 또 이 법을 가르쳐 주신 큰스님께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덤으로 얻은 이 육신은 오직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큰스님 법 열심히 따르며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몰라서들 그렇지, 이 뿌리만이 나무를 맘대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뼈가 퉁그러진 것도 제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고, 태(胎)가 잘못 앉아도 제자리에 가서 앉아서 임신을 제대로 하게끔 될 수도 있고 일체 몸을 맘대로 움죽거리게 하는 것은 자기 뿌립니다. 자기 주인공의 뿌리만이 움죽거리게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더 쉽게 말을 하자면 내 몸속에 있는 의식, 생명, 모습들만이 내 몸을 모두 바꿔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바로 내가 주인공의 모든 것을 진실로 믿고 맡길 때에 통신이 되는 겁니다. 통신이 되면 그 안에서 통신을 받아 가지고 전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체가 바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둥그러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자기 닥치는 대로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어떤 애고든지 불에 타 버린다 이런 게 있습니다. 불에 타 버린다.

**질문자5(여)** 스님, 저는 부산지원에서 왔습니다. 오늘 스님께서 제일 처음에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시기에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단식이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마음에 관한 이야기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한 번 더 체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여쭤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단식이라는 게 마음의 단식이지, 그 모든 것을 집어먹으면서도 먹는 사이가 없어야죠. 우리가 밥을 먹고도 먹는 사이가 없이 먹었죠. 왜냐하면 내 몸속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같이 먹었으니까 혼자 먹은 게 없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단식이야.

**질문자5(여)** 예. 그런데 제가 어떤 인연이 닿아서 그런지 몰라도 올 여름방학 때에 저도 단식을 일주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단식에 관해서 여쭈어 보길래 제가 단식한 방법대로 단식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간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간암 환자인데 단식을 한다기에 제가 덜컹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좀 더 전문적인 분한테 여쭈어 보고 하지, 왜 저한테만 물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꼭 자기 마음대로 꼭 그 방법대로 하고 싶다 하기에 "한번 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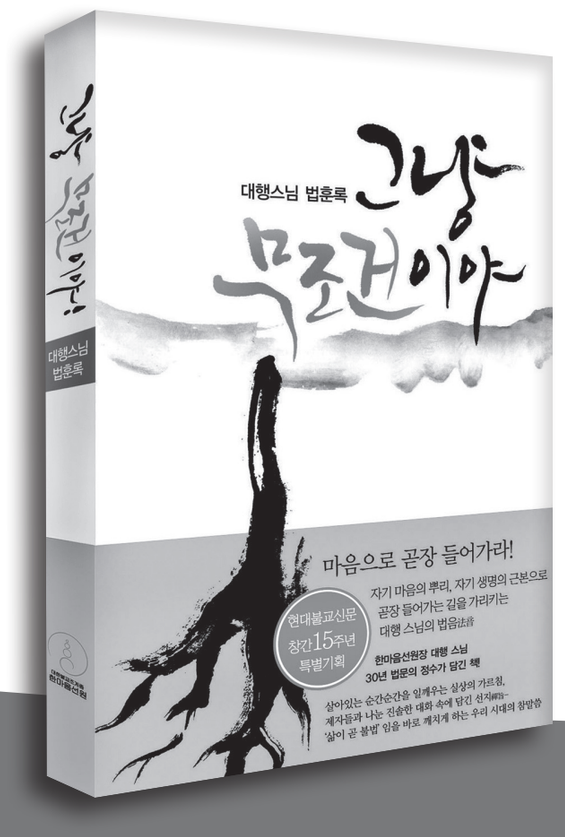
그래서 그분이 3일 동안 물만 먹고 그다음에 21일 동안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포도를 조금씩 먹어 가면서 단식을 했는데 그분이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 상태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꼭 저하고만 이야기를 해 가면서 자꾸 매달리고 있는데, 제가 그 환자를 낫게 해 줄 힘도 없고, 제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에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하고도 마음이 통해 가지고 환자가 지금 치료 과정에 있는데 마음의 치료는 지금 안 되었습니다. 스님,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허허! 그거야 당신 마음대로 해요. 관하는 법을 가르쳐 주든가 또는, 이게 마음의 단식이라는 것은 100%의 규정적인 단식이에요. 이 마음의 단식이라는 것은 몸 안에서 전부 작용을 해 주는 그 묘법의 단식이고, 그냥 음식을 끊어서 단식하는 거는 우리 상식대로 좀, 모든 것을 비워서 병이 낫게 할 수 있다 하는 데서 오는 단식이죠. 그러니까 단식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몸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단식이고, 이 단식은 마음의 단식이기 때문에 모든 그 전체 마음의 단식에 의해서 전체가 거기 붙어 돌아갑니다. 그러니깐 이 몸속에서 모든 그 단식의 신호가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다 작용을 스스로 해 주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단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의 부처님들께서도 마음의 단식을 주장했지 몸뚱이의 단식, 먹는 걸 끊어 가면서 단식하는 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자유스럽게 사십시오. 우리는 지금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섰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차로를 넘어서서 둘 아니게 응용하신다면 앞으로 살기에 억울함이 없이 아마 편안하게, 공심(共心)으로서 공용(共用)을 하고 사실 겁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2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